

석사학위청구전

불교의 이상향, 淨土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유 현 정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불교의 이상향, 淨土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유 현 정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불교의 이상향, 淨土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유 현 정

유현정의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을 인준함

202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한 동 호 (인)

심사위원 김 정 현 (인)

심사위원 김 서 미 (인)

유현정 불화전

정토 불교의 이상향
淨土

2022. 5. 18.^{WED}

— 5. 24.^{TUE}

Gallery 루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
T 02)738-0321

불교의 이상향, 淨土

4세기 후반에 불교가 도입된 후,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불교미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삼국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한국적 회화의 특징이 형성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종교화가 크게 발전한 덕분에 현재까지 화려한 채색과 정교한 문양, 철저한 고려만의 특색을 질게 풍기는 고려불화가 전승될 수 있었다. 당대의 화가들은 부처의 모습과 부처의 나라 정토를 화폭에 남아내기 위해 값비싼 재료를 아끼지 않았고, 절정의 섬려한 기술을 구사한 화가들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는 사상 유례없는 “불교미술의 황금기”에 제작된 명작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미술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던 불교미술은 외래종교인 불교신앙을 토대로 우리 고유의 사상과 전통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 한국적 모습으로 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미술 전반에 걸쳐 불교사상의 영향이 끈질기게 작용한 것¹⁾이라 할 수 있다.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은 한국미술은 자유를 바탕으로 일체의 가식과 허위를 벗어난 무위의 천진스러움이 표출된다는 특징²⁾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교미술을 관찰할 때는 작품의 형상에 대한 미술적 관찰과 함께 내면에 대한 종교적 관찰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불교적인 것이 미술적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하는 불교미술은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표현으로 집약된다. 또한 불교미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교적인 美를 통해 부처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하는 것³⁾으로, 형상이 없는 무형의 세계, 無想의 체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불교의 정토(淨土)는 청정한 맑고 깨끗한 부처의 나라, 어떠한 번뇌도 괴로움도 없는 평안한 부처의 나라라는 의미를 갖는다. 정토는 대승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에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일컫는 말로 변화되었다.⁴⁾

1) 장충식(1997), 『한국의 불교미술』, 서울: 민족사, 234쪽.

2) 이성도(1995), 「한국미술의 조형의식」,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 제5호, 151쪽.

3) 문명대(2002), 『한국불교미술사』, 서울: 한언, 11쪽.

정토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에 있으며, 무량수불과 중생 사시의 1:1 대응이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의 청명을 통해 극락에 왕생하는 것⁵⁾으로, 정토는 곧 대승불교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법을 보는 자는 여래를 보고, 여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하여 緣起法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설한다. 이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한 경계이며, 生住異滅의 과정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정토는 인간의 죽음 이후에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부처의 세계로,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 가운데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은 정토의 모습과 정토를 근간으로 하는 사상을 담아내고 있다.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에서는 부처가 계신 정토는 찬란하게 빛나는 궁전과 화려한 장식이 되어있는 누각, 금빛으로 빛나며 황금 모래가 깔려있고 여덟 가지 공덕의 물이 가득 차 있는 칠보 연못, 갖가지 색으로 피어 있는 연꽃, 천상의 음악과 꽃비가 내리는 하늘, 노래를 부르며 날아다니는 새 등의 모습이 묘사된다. 이러한 모습들은 곧 極樂이며, 당시의 불교의 신자들은 살아생전의 선행을 통해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소망하였다.

본 전시 작품들 역시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에 묘사된 정토의 세계를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아미타불이 가르침을 설하는 법회 장면, 부처의 설법 장면, 관음보살의 정토의 모습 등을 불화로 표현함으로써 부처와 보살이 머물고 있으며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부처의 청정한 이상향인 정토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로부터 전해진 학화(學畵)의 과정인 임(臨, 앞시대의 화법을 익혀 개인의 기량을 연마), 이를 바탕으로 원작의 화의(畵意)를 응용하여 화폭에 재구성한 방(倣), 자신의 관점으로 운용하는 창(創)의 과정으로 그려진 작품으로

4) 홍광표, 김정호(2011), 韓國傳統造景學會誌, 제29권 제4호, 160쪽.

5) 김호성(2020), 『정토불교 성립론』, 서울: 조계종출판사, 20쪽.

구성되어 있다.

먼저 비단 바탕에 채색한 작품인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석가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보물 제1273호 해인사의 영산회상도를臨한 작품이다.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는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관음도의 임모작으로, 불화 해체보고서를 참고하여 작품 제작 당시에 사용한 안료를 사용해 복원모사한 작품으로 오리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갈색계 염료를 배경과 자연물에 흰수를 달리하여 도포함으로써 화면의 깊이감을 주었다.

부처님께 꽃을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향불헌화(向佛獻花)> 작품에서 꽃을 바치는 행위는 부처에 대한 존경의 의미와 함께 극락 세계에서 살기를 바라는 염원을 상징한다. 여러 계절에 피는 다양한 꽃을 하나로 모아 그려서 각종 보석으로 장엄한 화병에 꽂아 부처님께 바치는 의미로 그린 작품이다.

<정토연못(淨土池)>과 <정토에 피는 꽃(淨土花) I, II> 작품은 아미타경에 묘사된 서방정토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정토연못(淨土池)>은 색이 있는 비단을 사용하고 잘게 부순 여러 색상의 박을 비단 뒷면에 붙여 빛이 산란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정토에 피는 꽃(淨土花) I, II>는 금박을 땅에 넣어 가루처럼 뿌리는 스나고(砂子) 기법을 사용하여 꽃에서 발광하는 빛에 생동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아미타경도해(阿彌陀經圖解)>는 4폭 병풍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조선 후기 청록산수의 기법으로 우리나라의 산천을 그리고, 그 중앙에 아미타불이 설법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상공에 부처의 설법을 경청하러 모여든 보살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정토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위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정토 신앙은 단순하게 극락왕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정토를 통해 인간이 지향할 수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보살의 정신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정화하고,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전시 작품들이 각각 담아내고

있는 정토의 세계는 정토에 왕생해서 육신통을 갖추어 또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아미타불의 발원을 받침 하는 정신⁶⁾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모티브는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에 묘사된 아미타정토이다. 정토로 일컬어지는 극락의 장엄한 모습은 『아미타경소』를 통해 재가 신자들에게 극락왕생을 효과적으로 권유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⁷⁾ 또한 『불설아미타경』은 누구든지 아미타불의 청명염불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⁸⁾ 이는 정토 사상이 민중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행도(易行道)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중들의 염불신앙⁹⁾으로 자리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이번 전시에 출품된 불화 작품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함축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극락왕생의 정토 세계를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돕는데 목적을 두었다.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수행 및 의식 중에서도 정토 사상과 사상을 구성하는 다채로운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체계는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불교 신자나 불교를 둘러싼 시각적 환경은 전통사회와의 동질성을 거론하기 힘들 만큼 달라져 있다¹⁰⁾는 점을 고려할 때, 불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문화와 美 의식에 맞는 새로운 불화 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전시 작품들은 과거 역사적 산물로서의 불화 작품과 함께 현대의 살아있는 불교 정신을 고양하고 현대 불교에서 바라보는 정토의 새로운 창조로서의 불화 작품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본 전시 작품들을 모든 존재의 공성(空性)을 깨닫도록 가르친 불교의 근본정신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불화의 창의적인 전통이 이어질 수 있는 작품 세계를 펼치고자 한다.

6) 경전연구모임(2016), 『정토오부경 나무아미타불』, 서울: 불교시대사, 7쪽.

7) 성재현 외 4인(2017), 『미륵상생경종요 외』,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82쪽.

8) 최종남(2009), 『아미타경 한글 역주』, 서울: 경서원, 37-39쪽.

9) 서재홍(2013), 「『無量壽經宗要』를 통한 元曉의 淨土思想」,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쪽.

10) 이주형(2000), 한국 불교미술의 미학적 의미와 문화적 특징,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11권, 49쪽.



阿彌陀如來圖 아미타여래도 130×205cm 絹本金채 2021



阿彌陀後佛圖 아미타후불도 160×205cm 면본진채 2008



向佛献花 부처님께 꽃을 바치다 50×110cm 絹本眞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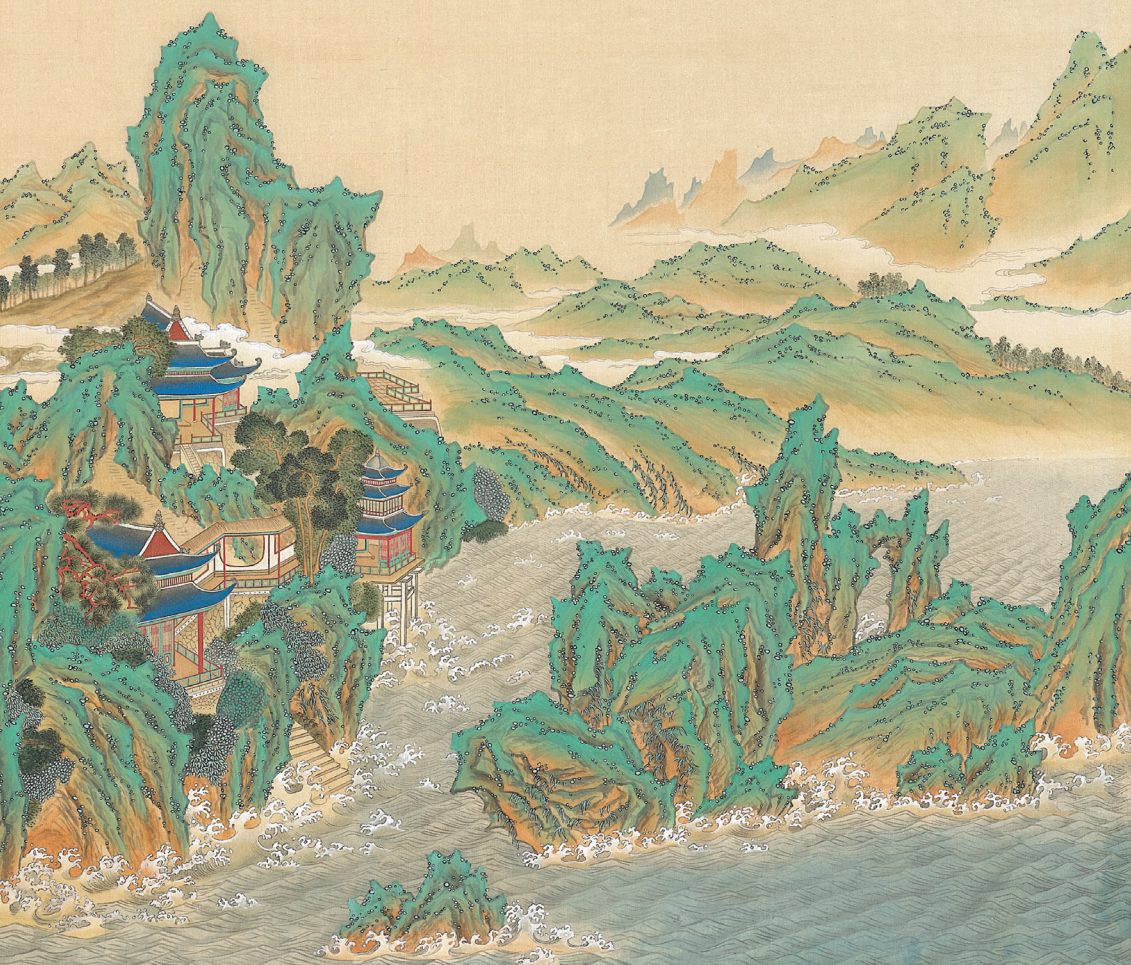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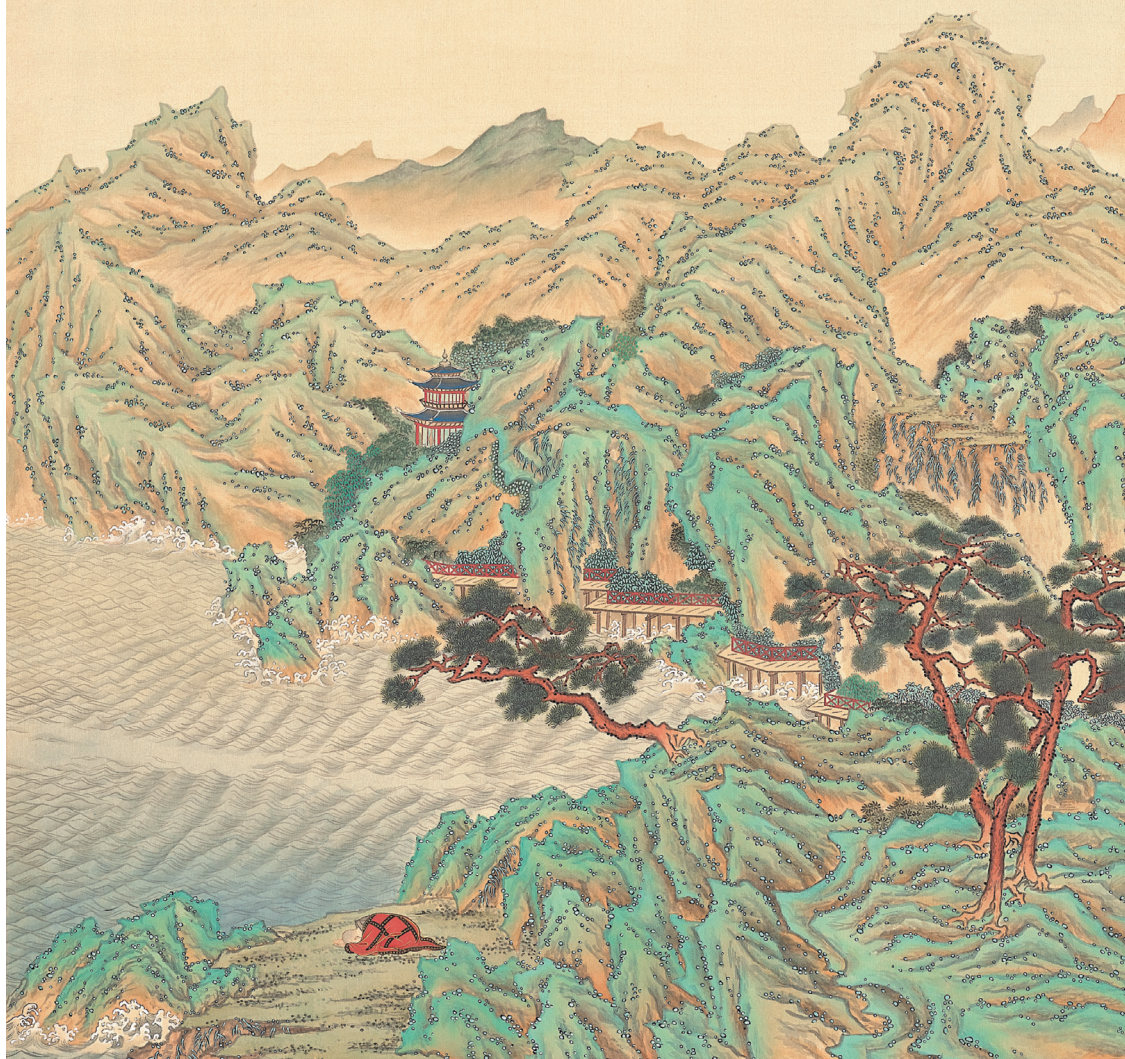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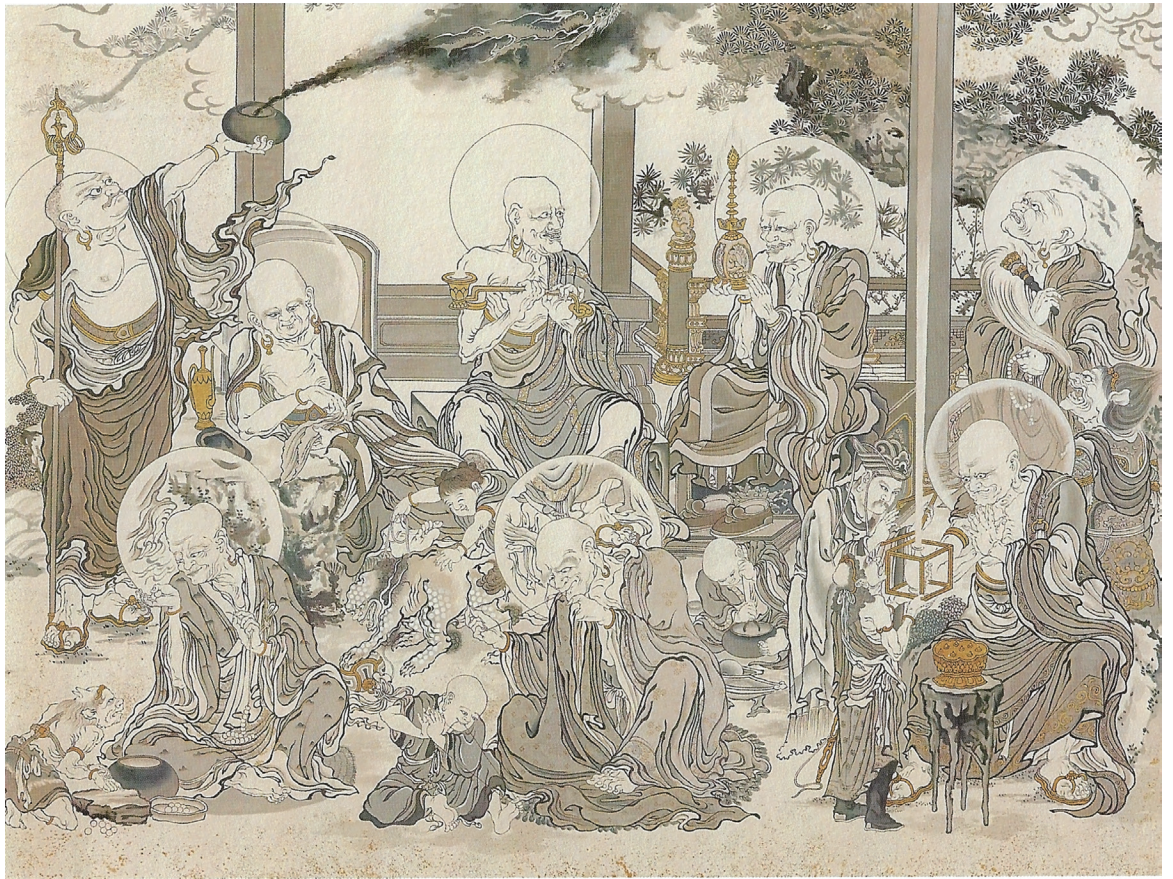
靈山會上圖 영산회상도 146×184cm 絹本, 金彩 2011





















楊柳觀音圖 양류관음도 85×140cm 絹本眞채 2014





吉祥天圖 김상천도 32×53cm 견본진채 2017





蓮花圖 연화도 100×170cm 靑本眞채 2022









水中花影 물에 비친 꽃 26×36cm 견본진채 2019

유현정 Ryu Hyun Jung

E-mail gubung2@naver.com
Instagram @oroji1gil

학 력	한성대학교 진채화 전공 석사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 학사 졸업
전시경력	2020 《세화전 ~천년 전통의 새해맞이 그림선물 축제》 갤러리한옥, 서울 2019 《무우수 불교미술제 in 宋庄》 무풍대화랑, 중국 북경 2019 《진채의 정수, 초상 Portrait, the essence of Jinchae》 갤러리이즈, 서울
수상경력	제30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제32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불화·민화부문 최우수상 제29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선 제2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우수상 제2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우수상 제36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불화부문 입선 제33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불화부문 특선 제06회 천태예술공모대전 특선
소장 및 기타 경력	갑외사 성철스님 기념관 작품 소장 영화 조철현 감독작 '나랏말싸미' 미술작품 제작 영화 최동훈 감독작 '외계+인' 미술작품 제작 영화 박찬욱 감독작 '일장춘몽' 미술작품 제작 경기도 박물관 소장 이세백, 이의현 초상 모사 보물 해인사 영산회상도 초본 모사도 제작 보물 동화사 아미타회상도 초본 모사도 제작 및 보채 보물 축서사 괘불 초본 모사도 제작 및 보채 은해사 아미타삼존도 보채 고산사 아미타불화 보채 영국국립도서관 소장 기사진표리진찬의괘 모사
자격증	문화재수리기능자 모사공 제8336호

유현정 불화전

정토 불교의 이상향

淨土 佛敎의 理想鄕

발행인 유현정
발행일 2022. 05.
디자인 Petze Design
petze.design@gmail.com

© 2022 Ryu Hyun Jung.

이 도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복사, 복제 또는 사진 및 기타
정보기기에 의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2. 5. 18. WED

5. 24. TUE

Gallery 루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
T 02)738-0321

